

# “경찰 고위직에 분기마다 100만~200만원씩 줬다”

### 사건브로커, 재판서 “경찰청장·고위직에 명절·휴가 때마다 금품 줘” 식사·골프로 인맥 과시...광주·전남 경찰 ‘승진 청탁’ 비리사슬 시사

경찰청장 등 고위직들에게 건넨 일명 ‘스폰(Spon)’ 금액이 분기마다 100만~200만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가 금품과 골프, 식사집대로 인맥을 과시했고 광주·전남 경찰들이 성씨에게 앞다투어 승진을 청탁하는 비리사슬이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지난 14일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 승진청탁 사건 증인 신문이 열렸다.

재판에는 A씨(제3자 뇌물교부 혐의), B씨(뇌물수수), 성씨(제3자 뇌물취득) 등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리의 끝자락은 2022년 인사 당시 광주서부경찰

소속 A(55)씨가 경감승진을 위해 성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인사청탁을 했고, 성씨는 이를 당시 광주경찰청장 B(58)씨에게 전달해줘 승진을 하게 해줬다는 혐의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법정에서 청탁과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성씨가 증인으로 섰다.

검찰이 성씨에게 “B씨에게 돈을 준 게 비단 돈 한 번뿐인 게 아닌 것 맞습니까?”라고 묻자 “용돈으로 돈을 더 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성씨는 이어 “진동생처럼 살았다”면서 “골프를 치면서 용돈을 몇 번 준다든지 여름 휴가비로 용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추가로 성씨에게 정확한 용돈의 금액과

제공주기를 묻자 성씨는 100만~200만원 사이였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성씨에게 B씨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돈을 줬는지 묻자 성씨는 “다른 고위직들에게도 줬다”고 대답했다.

즉 성씨는 경찰청장 등 고위직들에게 분기마다 또 명절마다 휴가철에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스폰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성씨는 고위직들과 꾸준히 식사와 골프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성씨와 자리를 가진 경찰대 1~3기 출신 고위직 경찰들의 실명이 줄줄이 거론됐다.

B씨만 해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식당에서 자리를 같이 해왔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경찰들 사이에서 성씨의 위상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씨가 B씨에게 A씨 인사청탁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 첫번째 식사자리에는 광주경찰청 총경급 과장 2명이 동석했다는 것이 검찰과 변호인들의 설명이다.

성씨는 동석한 총경급 과장 2명을 손짓 하나로 먼저 나가있게 할 정도였다.

검찰이 성씨에게 “동석자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전달해 줬냐”고 묻자 성씨는 “친한 동생들로 알고 있던 과장들을 먼저 나가라고 한 뒤 옷걸이에 걸려 있던 상의 안주머니의 현금 500만원을 바로 옆에 걸려있는 B씨의 안주머니로 옮겼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씨의 남다른 위치에 승진에 목마른 경찰들은 그에게 줄을 땀수 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성씨에게 총경급으로 승진한 현 전남지역 경찰서장 등의 실명을 호명하며 “이들이 증인(성씨)에게 (인사)부탁을 해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또 당시 광주서부경찰 소속 과장 등은 성씨를 만나 “(당신이) A씨를 승진시켜주는 바람에 승진을 앞둔 C씨가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B씨 변호인은 성씨가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일시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을 진술하면서 2개월 여의 간격을 두고 줬다고 6개월간 주장하다 갑자기 B씨의 영장청구를 앞두고 9일 간격으로 줬다고 바꾼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성씨가 기소를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축소하고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당시 성씨의 휴대전화가 변경돼 정확한 통화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성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이 재판에서는 A씨를 성씨에게 소개해준 당시 광주서부경찰 소속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인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지장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불자들이 아기 부처를 씻어주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부처님오신날’ 온 누리에 자비와 광명을

#### 주요 사찰들 봉축 법요식 봉행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5일 오전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조계종 호남 지역 교구 본사를 비롯해 각 중

단 사찰들이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또한 광주 중심사, 무각사, 원각사를 비롯해 광주 전남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렸다.

법요식에 참석한 불자와 시민들은 부처님이 사바 세계에 오신 뜻을 되새기는 한편,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

중원 중심사 주지스님은 ‘마음의 평화, 행복찬 세상’이라는 주제의 봉축사에서 “건강한 마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다. 건강한 마음에서 평온한 마음, 마음의 평화가 나온다”면서 “사회적 정진이란 나와 이 세상이 돌이 아님을 자각하고 세상의 변화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이어가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개입 혐의 공무원들 대법원서 무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9일 공무원 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항고심을 유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중재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무관 B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회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특정사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시를 하고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靑대학평가 3년 연속 ‘호남 사립대 1위’

조선대학교가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호남 사립대 1위를 기록했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4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851개 가운데 409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는 국내 대학 중 41위, 호남지역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는 2022년 아시아대학평가 순위에서도 국내 42위, 2023년에는 국내 45위에 선정됐으

며, 호남 사립대 중에서는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올해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 기업 평판도, 교원당 학생 수, 논문당 피인용 수, 국제 연구 협력 등 11개 평가지표를 반영해 순위를 선정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에서 시행하는 세계 대학평가는 1994년부터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학교별, 지역별로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